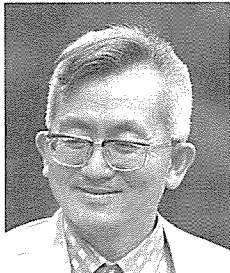


# 고려 명종때의 과학자 權 敬 中

고려 명종때의 과학자이며 사학자였던 권경중(權敬中)은 상서(尙書) 지제고(知制誥) 등 벼슬에 오른 사람으로 「고려사」에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다. 권경중은 신선술에 빠져있던 사람으로 이규보(李奎報) 등과 함께 1186년 「명종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는 일식과 월식을 재이(災異)로 풀이했는데 일식은 내란과 기름·홍수의 징후로 보아왔으며 무지개·흄비·안개 등도 재이를 몰고다닌다고 주장해 왔다.



朴 星 來

〈한국외국어대 인문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고려사」(高麗史)에 보면 권경중(權敬中)이란 인물의 활약이 길게 기록되어 남아 있다. 거의 5백년이나 지속된 고려시대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유명한 역사책이 바로 「고려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그런데 그 책의 전기(傳記) 부분에는 수많은 고려시대 활약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가운데 권경중의 전기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권경중이 고려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 준다. 그리고 이 기록은 모두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 권경중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던가를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당대의 과학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이규보와 「명종실록」 편찬

권경중에 대한 「고려사」 기록은 그의 개인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권경중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밝힐 수가 없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신선술(神仙術)에 빠졌던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의 벼슬은 고종 때 상서(尙書) 예부시랑(禮部侍郎) 지제고(知制誥)에 올랐다는 기록만 전할 따름이다. 그가 신선술에 빠져 벽곡술(酸穀術)을 익히는 것을 보고 이규보(李奎報, 1168~1241년)가 시를 지어 이를 책망했다고도 전한다. 바로 그 시가 지금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남아 있다. '시랑 이미수가 박사 권경중의 벽곡을 나무란 시문에 차하다'(次韻李侍郎眉 寄權博士敬仲責僻穀)이란 제목의 시 3편이 그것이다. 오랫동안 벽곡술을 행하여 좋은 얼굴이 초췌해진 것

을 안타까이 여기며 책망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또 이 시는 당대의 또다른 문필가 이인로(李仁老)와 함께 지은 것임을 짐작하게도 한다. '미수'란 바로 이인로의 호(號)이기 때문이다. 사실 권경중은 이규보, 유승단(兪升旦, 1168~1232년)과 함께 「명종실록」(明宗實錄)을 편찬한 역사가로도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모두 사라져 고려 때의 「실록」은 구경할 수 없지만, 권경중이 「명종실록」 편찬에 가담한 것이 바로 이 시절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권경중은 이규보나 유승단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려사」의 '권경중전(傳)'에는 무슨 기록이 그리 많길래, 그 가운데 권경중 개인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적다는 말인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고려사」 권경중전은 모두 10페이지나 된다. 2백자 원고지로 아마 50장은 넘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가 명종 때의 재이(災異)에 대한 그의 논평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권경중이 쓴 글이 그대로 길게 인용되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글은 '신(臣)이 편찬한 4년 동안의 기록 가운데 재이에 관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로 시작된다. 임금에게 올린 글임을 알 수 있고, 그가 담당한 「명종실록」이 4년분임을 알 수 있다. 아마 그가 담당한 4년이란 1186년부터 1190년 사이였을 것 같다.

먼저 그가 제일 처음 다루고 있는 일식(日食)에 대해 살펴 보자. 그는 정미년 7월의 일식과 기유년 2월의 일식에 대해 기록하고 논평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정미년이란 1187(丁未)년으로 고려 명종(明宗) 17년에 해당하며, 기유년은 2년 뒤인 1189(己酉)년으로 명종 19년이다. 「고려사」 세가편(世家

篇)에 보면 정말로 1187년 7월과 1189년 2월에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권경중은 1187년 7월 그믐날의 일식은 그날 밤에 있었던 조원정(曹元正)과 석린(石隣)의 반란을 예고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 일식은 내란·가뭄 등 예고

그날 밤 2경에 70여명이 궁궐 담을 넘어 들어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며 반란을 꾀하다가 그 수괴인 조원정과 석린 등이 붙잡혀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사관(史官) 권경중은 원래 임금의 나라의 편안하고 위태로움을 가름하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그 미세한 때부터 조심하여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건만 미천한 출신에게 병권을 쥐게한 채 방비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189년 2월의 일식은 그해 윤 5월의 가뭄을 예고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일식이란 가뭄이나 홍수의 예고 정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일식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는 그밖의 태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가 빛을 잃고 태양의 뒷편에 기운이 감싸고 있어서 밝은 붉고 안은 누런 경우, 또 태양에 동서로 고리가 달린 듯한 경우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재이는 「전한서」(前漢書) 「진서」(晉書) 천문지 등을 보면 신하가 나라를 어지럽힐 조짐이라면서, 비록 조원정과 석린의 반란은 수습했으나 동남쪽의 도적떼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런 하늘의 경고가 내린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다음은 달이 항성을 침범한 경우다. 「춘추」(春秋)에서도 일식은 다루었으나 월식은 다루지 않았다면서, 권경중은 월식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달이 묘(昴)와 심(心)을 너무 접근했거나 아예 침범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중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묘나 심이란 바로 28수(宿)의 두 가지 성좌로서 이들은 바로 옥사(獄事)와 상벌(賞罰)을 주재하는 별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이에 주목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달이 다른 항성과 접근하고 겹쳐지는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를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5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다. 목성, 금성, 화성 등의 행성이 행성끼리 또는 다른 항성과 접근하거나 겹쳐질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들 5행성에 관한 재이는 대체로 중국을 향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관여된 일은 아니니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논평하고 있다. 그가 다루고 있는 4년동안에 이미 20회 이상의 행성에 관한 이상현상이 관찰되었음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지만, 중국 고전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어서 권경중은 적기(赤氣)의 기록도 두어번 있었다면서, 붉은 기운이란 근심 걱정, 기운으로써 당시에 어떤 불만 세력이 난을 꾸미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은 각종 이상한 무지개에 관한 것이다. 이상한 무지개는 5회 관측되었는데, 이는 「진서」 천문지에 의하면 흰 무지개는 백가지 재앙의 근본이며 모든 난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흠비와 같은 안개가 두번씩 관측되었다면서, 그 해석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비가 옷을 적시지도 않으면서 흠이 내리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도리에 어긋날 때 일어난다고 소개하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봄철의 황사(黃砂) 현상

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시대에는 이런 투로 해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무지개·흠비·안개도 관측

또 별뿔별(流星) 25회, 큰 우박 8회를 말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일은 우박이란 음양 조절의 잘못에서 비롯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하면 된다는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신라 때 이후 줄곧 얼음을 저장했다가 사용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석빙고(石氷庫)나 동빙고(東氷庫), 서빙고(西氷庫) 등은 그런 유적이다. 권경중이 소개한 이론이 언제부터 국내에도 소개되어 영향주었던지 연구해볼 문제라 하겠다. 그밖에도 그의 재이사상은 나무, 불, 물, 돌, 그리고 몇 가지 동물에 대한 재이로도 이어진다. 그 가운데에는 벌레가 밤나무 잎을 갉아먹은 일도 2회 기록되었다면서 그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밤나무는 북방(北方)의 과일이니 그 잎을 벌레가 먹는다는 것은 북방의 신하가 간신의 중상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세기의 실학자 이익(李瀼, 1681~1763년)이 인용하여 논평한 기록도 보인다. 설마 그럴 것이냐는 듯한 의문을 담고는 있지만, 18세기의 이익이 5백년 전의 권경중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밖에도 권경중에 대해서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4회 그가 역사 사건에 대해 史官(사관)으로서 논평한 내용이 기록되어 남아 있다. 권경중은 고려 때의 과학자이며, 또 역사가로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㉟